

# 반딧불이 보러 무주로 가자

‘반딧불이 신비탐사’ 주말탐사 마감... ‘스페셜 반디원정대’ 신설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반딧불축제 주인공으로 그 이름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19:00~21:00, 축제 전용주차장 출발)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올해는 일반탐사 외에도 곤충전문가가 동행하는 스페셜 반디원정대가 신설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참가 접수는 현재 인터넷상(www.firefly.or.kr)에서 진행 중이며 탐사비용은 일반 탐사가 1만원, 스페셜이 1만3,000원이다. 주말탐사(8.26./27./9.2.)는 벌써 마감돼 당일 현장 접수로만 탐사가 가능(선착순 하루 1,000명)하다.

군 관계자는 “야간 실태조사를 하면서 반딧불이가 다량 출몰하는 지역으로 탐사지를 정했고 탐사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런 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터넷 평일탐사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서 새로워진 탐사를 즐겨 보시라”고 전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스페셜 반디원정대는 사)한국반딧불이연구회 소속 곤충 전문가들이 동행해 반딧불이의 생태와 일상을 꼼꼼히 설명해 준다. 참가자들의 자긍심을



무주 반딧불이 신비탐사

높이기 위해 초·중학생들에게는 특별히 탐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축제가 자랑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달빛, 별빛을 길잡이 삼아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반딧불이의 혼인비행을 보는 재미가 특별하다. 무주반딧불축제가 개최되는 8월 말에서 9월 초는 늦반딧불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로 6월에 활동을 하는 애·문문산 반딧불이에 비해 개체 크기가 크고 발광력도 좋아 탐사 재미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지표곤충이자 천연기념물(제322호)이기도 한 반딧불이는 기후나 습도 등 자연환경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탐사 당일의 일기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를 동반하지만 해마다 반딧불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관련 문의 063-320-5004)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명품사과 조생종 ‘쓰가루’ 첫 수확

시험포 0.3ha서 1000kg 수확... 출하가격 10kg 한상자 4만원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맛과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장수사과 조생종 ‘쓰가루’ 첫 수확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장수사과 시험포 0.3ha(310주, 3년생나무)에서 조생종 사과품종인 쓰가루 1,000kg을 수확, 출하가격 10kg 한상자가 4만원으로 책정돼 장수사과영농조합에 위탁판매 할 예정이다.

장수 쓰가루는 신맛이 강하고 아삭한 육질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며 햇사과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장수사과는 해발 400고지에서 생산돼 신선하고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으로 높아 맛이 최상이다.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은 “올해 첫 수확을 좋은 결실로 거뒀서 기쁘다”며 “앞으로 수확을 앞둔 추석사과 홍보, 하니 등 나머지 품종도 최상의 상품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재배농민들을 대상으로 과원관리 수확관리요시까지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장수사과 재배농가들의 품질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품질관리사 6명을 배치해 비파괴당도계를 이용, 수확 전 당도측정으로 당도가 높은 사과를 선별 수확하여 시장에 출하되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군-한인홍, 홍콩서 장수사과 수출협약

장수군은 ‘장수사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최근 식품전문유통회사인 한인홍과 홍콩 현지에서 한영희 부군수와 생산자 단체 등 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장수군과 (주)한국한인홍 간의 협약은 시장개척 및 공동발전을 위한 것으로, 홍콩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주)한국한인홍은 홍콩시장 내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국내 농산물, 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곳으로 식품전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영희 부군수는 “앞으로 사과를 비롯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장수사과의 브랜드 경쟁력 및 홍콩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장수농식품수출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민관 합동 점검

진안군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민간 식품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문방구, 슈퍼 등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29개소로 무신고제품 취급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여부 등 식품 안전 중심의 지도와 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안내,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목적으로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액체 질소를 주입하여 판매하는 용기리과자(질소과자) 판매여부와 함께 질소 과자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힘써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경찰, 구천동 여름파출소서 ‘인권·범죄 피해자 보호’ 홍보

무주경찰서는 구천동 여름파출소에서 ‘인권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구천동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물 및 자체 제작한 우산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정상민 청문감사계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 및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진안홍삼연구소, 인삼수출연구사업단 선정

### 농식품부 인삼수출연구사업단 협력기관 초빙 회의 개최

진안홍삼연구소는 17일 인삼수출연구사업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수출유망품목인 인삼 품목에서 전국 10여개 인삼전문연구기관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진안홍삼연구소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안홍삼연구소에서는 17일 농림식품부 인삼수출연구사업단 협력기관들이 모여 2017년도 인삼수출연구사업단 Kick-Off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항로 군수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령인삼 수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수출기업체인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인삼특작부,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인삼협회 외 17여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려인삼 수출현장 애로·요구사항과 문제점, 그 해결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첫 번째 장이 됐다.

고근택 진안홍삼연구소장은 “그동안 인삼수출업계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어려움을 인삼수출연구사업단에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우리나라 인삼수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인삼수출연구사업단의 연구기획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려인삼이 획기적으로 수출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읍 맞춤형복지팀 콜키트 20상자 배분

장수읍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16일 에너지 소외 계층에 지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해 콜키트 20상자(탁상용 선풍기 외 4종)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교육·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수읍은 2016년 7월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앞장서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